

[3차시] 틀리기 쉬운 말



1. 정한수(?) 떠 놓고

멀리 나가 있는 가족을 위해, 군대 간 아들을 위해, 병이 난 가장을 위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꼭두새벽에 우물로 나가 정성스레 떠온 맑은 물로 천지신명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요즘에야 드문 풍경이겠지만 이런 장면은 영화나 소설, 노래 등에서 많이 묘사되곤 합니다. 오래된 대중가요 <전선야곡>도 “정한수 떠다 놓고 이 아들의 공 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치성을 드릴 때 떠다 놓는 물을 가리켜 ‘정한수’라 쓰는 사람이 많은데요, ‘정한수’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발음이 비슷해 실수하기 쉽지만 정화수(井華水)로 쓰는 게 맞습니다.

정화수는 새벽에 다른 사람들이 깃기 전 처음으로 퍼 올린 우물물을 말한답니다. 치성 드릴 때도 사용하지만 약을 달일 때도 쓰죠. 똑같이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선조들은 물을 수집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월에 처음 내린 빗물은 춘우수(春雨水), 가을철 이슬을 받은 물은 추로수(秋露水)입니다. 또 휘저어서 거품이 생긴 물은 감란수(甘爛水, 일명 백로수[百勞水]), 황토로 만든 물은 지장(地漿)이고요. 흐름의 세기에 따라서 순하게 흐르는 순류수(順流水), 빠르게 흐르는 여울물인 급류수(急流水)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을 다양하게 나뉘, 쓰는 곳을 달리한 옛 어른들의 발상이 재미있으면서도 놀랍습니다.

2. ‘~쟁이’와 ‘~장이’

로또 복권 발행 초기 점(占)집이 호황을 누렸다고 합니다. 복권 구입 날짜, 시간 문의에서부터 아예 행운의 숫자 여섯 개를 찍어 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용한 점쟁이나 역술가가 있는지 모르지만, 설사 그 번호를 안다고 해도 발설하면 천기누설(天機漏洩)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점치는 사람을 ‘점쟁이’로 불러야 하는지, ‘점장이’로 불러야 하는지 ‘~쟁이’ ‘~장이’가 나오면 누구나 헷갈립니다. 흔히 ‘~장이’를 ‘~쟁이’로 발음하게 되는 것은 뒤에 오는 ‘이’의 영향을 받아 비슷하게 소리 나는 현상 때문으로, 이를 ‘ㅣ 모음 역행동화’라고 합니다. ‘~장이’보다 ‘~쟁이’ 발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3차시] 틀리기 쉬운 말



하지만 ‘~장이’ ‘~쟁이’는 발음에 관계없이 쓰임새가 구분됩니다.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를 쓰도록 맞춤법에서 규정해 놓았습니다. 간판장이, 대장장이, 도배장이, 땀장이, 양복장이, 옹기장이 등은 기술자, 즉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장이’를 붙이는 거랍니다. 먹고살 만한 확실한 기술이 있는 사람에겐 ‘~장이’가 붙는 셈이죠.

개구쟁이, 거짓말쟁이, 겁쟁이, 멋쟁이, 뚜쟁이, 월급쟁이 등은 성질, 습관, 행동 또는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쟁이’를 붙이는 거랍니다. ‘점쟁이’는 특수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술자라기보다 점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므로 ‘~쟁이’로 씁니다. ‘관상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 심화학습

‘ㅣ’ 모음 역행동화’란 무엇일까요?

‘ㅣ’ 모음 역행 동화’란 앞 음절의 후설 모음 ‘ㅏ, ㅑ, ㅓ, ㅕ’가, 뒤 음절에 전설 모음 ‘ㅣ’가 오면 이끌려서 전설모음 ‘ㅐ, ㅔ, ㅖ, ㅗ’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현재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형대로 읽고 원형대로 적어야 합니다.

예) 아비(O) -> [애비](X)
어미(O) -> [에미](X)
고기(O) -> [괴기](X)
죽이다(O) -> [쥐기다](X)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ㅣ 모음 역행 동화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내기, 신출내기, 시골내기, 꽃내기, 냄비, 동댕이치다, 멋쟁이, 소금쟁이, 담쟁이덩굴, 골목쟁이, 발목쟁이’ 등입니다.

[3차시] 틀리기 쉬운 말



3. ‘맨날(?)’ 놀다가

“영희 엄마, 내일이 개학이야. 맨날 빈둥거리며 먹을 것 타령만 하는 애 때문에 혼났는데, 이제 해방이야”, “철수는 숙제라도 했잖아. 영희는 맨날 놀다가 삼일 전에야 방학 숙제 한 다고 난리를 피웠지 뭐야” 위 대화에 나오는 ‘맨날’은 자주 들어 본 말일 거예요. 별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맞는 말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맨날’은 형태로만 보면 ‘맨’이 접두사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맨~’은 ‘맨발, 맨주먹, 맨간장’처럼 어떤 단어 앞에 붙어 ‘아무것도 지니지 않거나 다른 것을 더 하지 않은 오직 그대로’란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맨날’의 뜻을 살펴보면 접두사 ‘맨~’으로 쓰인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언제나’ 등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많이 쓰는 ‘맨날’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이때의 정확한 표기는 ‘만날’입니다. ‘만날’은 ‘일만 만(萬)+날’의 형태로 ‘아주 많은 날’ 또는 ‘수없이 반복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만날 분주하게 일하시는 아버지 모습이 안쓰럽다” “장수 아범, 만날 동네일에 술심부름이나 해서 언제 사람대접 받아 보겠소” 등에서 보듯 어떤 사람의 정도 이상의 행동을 격려, 감사하거나 꾸지람할 때 덧붙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4. 년즈시(?) 말해요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인 ‘년지시’는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란 뜻으로 “년지시 말하다” “년지시 묻다” 등처럼 쓰입니다. 그러니 이를 ‘년즈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 진출 의사가 있는지 그의 마음을 년즈시 떠보아라” “그에게 국내에 체류할 것을 년즈시 권했다” 등처럼 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년즈시’는 ‘년지시’의 옛말입니다. ‘ㅅ, ㅈ, ㅊ’ 등 혀의 앞쪽에서 발음되는 전설(前舌)자음엔 같은 자리의 전설모음 ‘ㅣ’가 오는 게 발음하기 편하겠죠. 이에 따라 ‘년지시’는 혀의 가운데에서 발음되는 ‘ㅡ’가 ‘ㅈ’ 아래에서 ‘ㅣ’로 변해 굳어진 형태입니다. 이를 전설모음화라고 하는데, 현대국어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짓무르다(<-젯므르다), 질다(<-즐다), 줍다(<-쥹다) 등이 전설모음화로 굳어진 형태의 예입니다. 그러나 ‘으시시하다, 부시시하다, 으시대다’ 등은 ‘으스스하다, 부스스하다, 으스대다’가 여전히 표준말입니다.



5. 가열하게, 야멸치게

글에도 맛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투가 다 다르듯 글투도 다양합니다. 남성적인 글이 있는가 하면 부드럽고 섬세한 느낌을 주는 글도 있습니다. 그러한 맛을 내기 위해 작가들은 하나의 낱말 선택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말을 만들기도 하고 잊힌 우리말을 살려 쓰기도 합니다. 사투리가 사회성을 인정받아 표준어가 된 예도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도 이러한 규범성을 획득해 사전에 오를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는 바른 표기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입엔 익었지만 표준어가 아닌 것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가열차다’입니다.

“그들은 서울의 골목을 누비면서 가열찬 투쟁을 했다”란 문장에서 ‘가열찬’을 ‘가열한’으로 바꾸면 오히려 생소한 느낌이 들거나 ‘가혹하고 격렬하다’란 단어의 맛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는 ‘가열차다’란 표현을 보람차다, 희망차다, 기운차다와 같은 구조로 생각해 자연스럽다고 느끼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가열하다’가 표준어입니다.

비슷한 예로 ‘태도가 차고 야무지다’란 뜻의 ‘야멸차다’가 있습니다. “여론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야멸차게 비난했다”처럼 쓰입니다. 사람의 성격, 태도를 나타내는 말 중에 매몰차다, 대차다, 웅골차다 등 ‘~차다’란 형태가 많기 때문인지, ‘야멸차다’가 맞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야멸치다’가 표준어랍니다.

편하고 재미있다고 손 가는 대로 글을 쓰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맞춤법은 무시되기 일췌고 국적 불명의 외계어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바꾸어 쓰는 게 표현을 가두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지 않은 문장에서선 진정한 글맛을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6. 찼찼한(?) 여행

모두 함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 봅시다.

이벤트에서 ‘4인 가족 제주도 4박5일 여행 경품’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게 웬 황재인가 싶어 식구를 모두 이끌고 부푼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순식간에 붓 뜨고, 마음 역시 붓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스 불을 제대로 끄고 나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가스뿐이 아닙니다. 전기다리미 선을 뽑고 나왔는지, 형광등은 방마다 다 켜는지 불안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여행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아마 ‘찼찼한’ 여행이 되고 말았겠죠.

[3차시] 틀리기 쉬운 말



‘마음에 꺼림칙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으로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을 했지만 뭔가 찝찝하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사서 찝찝하다” 등에서와 같이 ‘찝찝하다’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찝찝하다’란 말은 속어입니다.

속어는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런 말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영업사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을 했지만 뭔가 찝찝하다” “마음에 안 드는 선물을 사서 찝찝하다”에서와 같이 표준어인 ‘찝찝하다’로 바꿔 쓰면 된답니다.